

원작 해체를 통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확대 가능성 —『토지』의 ‘인물열전’을 중심으로

조윤아*

1. 들어가는 말
2. 원작 해체의 필연성과 가능성
3. ‘인물열전’의 유형 및 특성
 - 3-1. 원작 보존 지향의 재구성
 - 3-2. 외전(外傳) 지향의 텍스트
 - 3-3. 청중과 현장 지향의 텍스트
 - 3-4. 전문해설 지향의 텍스트
4. 나오는 말

국문요약

박경리의 『토지』는 영화, 드라마, 만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하면서도 원작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인물열전’은 원작을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한 인물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서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물열전’을 분석해 봄으로써 원작 해체를 통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확대 가능성을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박경리 문학제’에서 발표된 ‘인물열전’은 모두 18편으로 18명의 등장인물이 조명을 받았다. 이 글들은 서술 특징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발표자가 최소한으로 개입하여 원작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재구성하는 유형이다. 둘째는 원작에 없던 내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용을 발표자가 상상하여 넣음으로써 외전(外傳)의 성격을 보이는 유형이다. 셋째는 발표자가 이야기꾼으로서 청중에게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인물의 생애를 전해주는 유형이다. 넷째는 전문적인 분석과 해설로 독자의 원작 이해를 도와주는 유형이다.

첫째 유형은 원작 독자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작 보존에 대한 엄격함을 유지함으로써 대중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이끌어내는 기여도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보인다. 둘째 유형과 셋째 유형은 대중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을 유도하여 독자에서 등장인물로, 혹은 작가로 전이(轉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독자 대중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넷째 유형은 원작을 충실하게 읽은 독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작을 읽기 힘들어하는 독자를 위한 텍스트로서는 부족해 보인다.

‘인물열전’은 고전(古典)으로 여겨지는 『토지』 원작을 적극적으로 해체하면서도 즐겁고 용이하게 독자의 것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텍스트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누구나 ‘인물열전’의 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장이 열린다면 보다 더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대중문화 콘텐츠가 생산될 것이다.

(주제어: 박경리, 토지, 인물열전, 원작 해체, 외전, 대중문화)

1. 들어가는 말

소설 『토지』는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만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장르변용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콘텐츠의 원작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1974년 영화로 제작된 〈토지〉는 제1부만을 다루면서 윤씨부인과 김개주

의 남녀관계가 중심에 부각되어 인기를 끌었으며 각종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¹⁾ KBS 드라마 <토지>는 1970년대와 80년대 두 차례나 제작 방송되면서 상당 기간 TV에 노출되어 그 덕분에 소설을 읽지 않았어도 박경리의 『토지』를 인정한 대중들이 많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²⁾ 2000년대에는 SBS에서 『토지』 작품 전체를 드라마로 제작하여 방영하였고, 그 당시 만들어진 드라마 세트는 현재 하동군에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³⁾ 한편, 만화 <토지>는 오세영(1부 7권)과 박명운(2부 5부 9권) 작가의 그림으로 컬러 단행본으로 간행된 후, 보급판으로 가격을 낮추어 흑백 단행본과 e-BOOK이 제작 판매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토지』(이룸, 2008)와 동화 『토지』(자음과모음, 2010)를 출판함으로써 독자층의 연령대를 확산하기도 하였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소설 『토지』는 1974년 라디오 방송극으로 제작 편성되기도 하였고,⁴⁾ 1995년 9월 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 50주년 및 『토지』 완간 1주년을 기념하는 서사음악극 <토지>가 공연되

1) 1974년 대중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김지미), 여우조연상(도금봉), 녹음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승하, 『소설 『토지』의 장르 변용에 따른 문제점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2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149쪽.

2) 첫 번째 KBS <토지> 드라마는 1부에서 3부까지를 대상으로 1979년 11월 12일부터 1980년 12월 29일까지 흑백 영상으로 방영되었으며, 두 번째 KBS <토지> 드라마는 1부에서 4부까지를 대상으로 1987년 10월 24일부터 1989년 8월 6일까지 컬러 영상으로 방영되었다. 최윤희, 『『토지』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원작 비교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2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187쪽.

3) 2004년 11월 27일에서부터 2005년 5월 23일까지 방영된 SBS 드라마 <토지>는 완간된 작품을 대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최윤희, 『SBS 드라마 <토지> 연구-서사 리듬 분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6, 369쪽.

4) 최윤희에 의하면 MBC에서 197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라디오 소설극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다. 최윤희, 『SBS 드라마 <토지> 연구-서사 리듬 분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6, 367쪽.

기도 하였다.⁵⁾ 이때 작곡과 지휘를 맡았던 김영동은 이후 2009년에도 원주시의 지원을 받아 소설 『토지』의 ‘민족서사음악극’을 명륜동 따뚜공 연장에서 두 차례 공연하였다.⁶⁾

이처럼 대하소설 『토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의 원작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그 나름의 변용과 재생산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드라마는 또 다른 드라마로, 드라마 세트는 관광 상품으로, 종이책 만화는 e-BOOK으로, 음악극은 다른 공연작품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토지』의 매체 전환 혹은 장르 변용을 통한 대중적 확산의 가능성과⁷⁾ 교육적·산업적 활용의 가능성을 밝힌 기존의 연구들을 수용하면서⁸⁾ 더 나아가 원작의 해체를 통한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박경리 문학제’의 문학포럼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토지』의 ‘인물열전’ 발표문을 분석함으로써 원작 해체를 통한 『토지』의 대중문화 콘텐츠로서의 확

5) 작곡과 지휘에 김영동, 대본 이승하, 연출, 김철리, 합창지도 최흥기·김향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과 서울시립합창단, 서울시립가무단 등이 협력한 대규모 음악극이었다. 이승하, 『소설 『토지』의 장르 변용에 따른 문제점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 2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176-177쪽.

6) 원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총연합회 원주시부와 (주)비아커뮤니케이션이 주관하였으며 미래국악관현악단과 솔리스트 연주로 8월 14일과 15일 공연하였다. 『강원일보』 2009.7.15.

7) 2016년 가을에 토지학회와 토지문화재단 공동주관으로 박경리 “『토지』의 대중적 향유”를 주제로 한 문학포럼이 열렸다. 여기에서 우찬제는 기초발제를 통해 『토지』의 문화콘텐츠화 전략의 예로 뮤지컬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며, 『토지』의 문학문화와 교육문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토지』의 대중적 확산과 문화콘텐츠』, 『2016 원주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의 대중적 향유』, 토지문화재단·토지학회, 2016, 5-10쪽 참조.

8) 박상민, 『다매체 시대의 서사담론과 글로컬 문화 스토리텔링』, 박이정, 2016, 47-51쪽과 이승윤, 『『토지』의 문학 교육적 활용 방안』,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352-356쪽 참조.

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원작을 독자가 직접 해체하고 재구성한 ‘인물열전’ 분석을 통해 작품에 개입하는 독자의 다양한 수용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토지』 원작 해체에 대중 독자 참여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또한 수백 명의 등장인물이 출현하여 거대하고 복잡한 서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작품을, 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간소화한 이야기로 재구성하였을 때 어떤 흥미로운 독서물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토지』 원작을 변용하여 장르를 달리하거나 독자를 차별화한 텍스트들을 살펴보면,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축약하거나 작가가 구성한 부/편/장에 따라 일정 정도의 연속적인 서사 분량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인물열전’의 경우 작가의 구성 방법과는 상관없이 단 한 인물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원작을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있다. 이것은 『토지』라는 작품이 지니는 문학적 위상과 가치 때문에 소극적으로 텍스트 변용을 해왔던 기존의 원작 활용과 차별화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작가나 작품의 높은 위상으로 한계를 보이는 원작 활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연구대상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원주에서 열린 ‘박경리 문학제’ 프로그램 중 문학포럼에서 발표되었던 ‘인물열전’ 18편이다.

2. 원작 해체의 필연성과 가능성

이수현은 기존의 〈토지〉 드라마와 원작 소설 비교 연구 대부분이 각색 텍스트가 원작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 종속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⁹⁾ 또한 김예니는 만화 〈토지〉가 만화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

하기보다 원작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¹⁰⁾ 이수현과 김예니에 따르면 매체를 달리하거나 원작을 변용할 때에 원작을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토지』의 경우 상당한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고, 한국문학사에서 지니는 의미와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만큼 원작을 변용할 때 변용하는 측의 내적 검열이나 변용 후의 외적 검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드라마와 만화의 경우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매체 자체의 독특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작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한도 내에서만 변용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변용 이후 독자적인 콘텐츠로서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중문화 콘텐츠로서의 변용을 시도할 때에는 대중의 호응, 대중과의 소통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원작 훼손에 대한 고려보다 대중의 수용 방식을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존 스토리(John Storey)에 의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본성과 문화 간의 타협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단순히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안에서 수행(performance)함으로써 정체성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문화 안에서 정체성을 수행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텍스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그는 젠킨스가 말하는 팬문화(fan culture)의 특징 — 텍스트를 가지고 뭔가 하면서 개개인의 삶 속에 텍스트를 완전히 흡수시키려고 하면 그 과정 안에서 분명 활기가 솟아난다. — 을 주목하며, 정체성 수행 과정에서 대중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¹¹⁾

9) 이수현, 『매체 전환에 따른 <토지>의 변용 연구—영화, TV드라마, 만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쪽.
10) 김예니, 『만화 <토지>가 보여주는 매체 전환의 한계』, 『돈암어문학』 제31집, 돈암어학회, 2017, 138쪽.

존 스토리의 견해에 따르면 원작은 그대로 보존되기보다 독자에 의하여 텍스트에 변화가 일어날 때 독자 개인의 삶을 활기치게 한다. 『토지』가 어렵고 힘든 독서 대상이 아니라 대중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향유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원작의 해체는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독자가 없는 소설, 읽히지 않는 소설은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 때문에 박상민은 대하소설 『토지』를 완독하기 힘든 이유를 분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작을 꼼꼼하게 읽는 독서가 어렵다면 축약본이나 장르변용 작품을 활성화하여 독서 방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¹²⁾

대중 독자를 위하여, 그리고 작품 자체를 위하여 원작의 적극적인 활용은 불가피하며 원작의 해체는 그 활용 방법 중 대중친화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대중문화란 바로 대중이 주체적으로 향유하고 재생산하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화이며, 원작 해체는 대중의 주체적 재생산을 위한 방법적 선택이다.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에 의하면, 융합 문화(convergence culture)에서는 “미디어 생산자의 힘과 미디어 소비자의 힘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¹³⁾ 오늘날 문화콘텐츠 미디어 환경에서는 소비자

11) 존 스토리, 『대중문화란 무엇인가(Inventing Popular Culture)』, 유영민 역, 태학사, 2011, 133-147쪽 참조. 존 스토리가 인용한 젠킨스의 글은 다음과 같다. “팬들이 열렬히 받아들이는 텍스트 안에 사람을 활기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텍스트를 가지고 뭔가 하면서 개개인의 삶 속에 텍스트를 완전히 흡수시키려고 하면 그 과정 안에서 분명 활기가 솟아난다. 결국 팬들은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읽기 방식을 좋아하는 것이다. 물론 텍스트와 읽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

12) 박상민, 『박경리 『토지』의 서술 특징에 따른 대중적 향유 전략』, 『대중서사연구』, 24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8, 259-260쪽.

13) 젠킨스(Henry Jenkins)는 이 책에서 “미디어 기업들은 수익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그리고 시장을 확대하고, 수요자에 대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배급 채널들을 관통하

가 생산자의 것을 수용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면서 문화를 창의적으로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의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독자)와 생산자(작가 혹은 원작)의 상호작용과 소비자에 의한 재생산은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인물열전’은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하소설 『토지』가 과연 역사소설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다. 그러나 『토지』가 ‘후경화한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전면에서 생생하게 다루어지기보다 후일담이나 전언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들은 『토지』의 허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부각하는 데에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마저 허구적인 인물로 재탄생되기도 한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은 등장인물의 회상이나 후일담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실존 인물이나 사건보다는 허구적 인물이 부각되는 효과를 낸다.¹⁴⁾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작가의 관점 혹은 세계관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다시 말해 ‘역사’보다 ‘소설’이라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하여 독자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역사적 사건이 다루어질 때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재현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설에서 허구성보다 사실성을 가치 우위에 두는 주장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나 진리가 단 한 번의 재

는 미디어 콘텐츠의 흐름을 촉진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미디어의 흐름을 더욱더 완전하게 그들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해,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과 상호작용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색다른 미디어 기술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존 스토리,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제5판(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박만준 역, 경문사, 2012, 380-381쪽에서 재인용.

14) 역사적 실존인물이면서 그 이름 그대로 등장하는 강우규 역시 주갑이라는 허구적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현으로 드러날 수는 없으며 그것은 언제나 논쟁적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콘텐츠로서의 소설 『토지』는 논쟁의 장, 창작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토지』 원작을 정전(canon)으로 삼기보다는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에 대하여 독자 나름의 주장과 상상을 펼칠 수 있도록 원작을 해체하고 재창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

3. ‘인물열전’의 유형 및 특성

2011년부터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에 대하소설 『토지』 ‘인물열전’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도에 ‘토지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강원도 원주시가 후원하는 ‘박경리 문학제’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문학포럼, 청소년 백일장, 시낭송, 각종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문학포럼에서는 박경리의 작품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를 하였는데, 2011년도에 새로운 형식의 발표가 시도된 것이다.¹⁵⁾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물열전’에서 다룬 『토지』의 등장인물은 총 18명으로 발표자와 발표 제목은 아래와 같다.

〈표 1〉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인물열전’

연도	발표문 제목	발표자
2011	서희 이야기	이상진
	용이 이야기	양문규
2012	이상현 이야기	이승운

15) ‘인물열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코너를 따로 마련한 것은 2012년부터였지만, 2011년에서부터 『토지』의 등장인물 중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다.

	임이네 이야기	조윤아
2013	귀녀 이야기	최유희
	김두수 이야기	박상민
2014	구천이 이야기	김성수
	봉순이 이야기 -순종과 순정 사이, 어떤 사랑의 역사	함정임
2015	김상 이야기	이인재
	공월선 이야기	서현주
2016	인실이 엄마	이덕화
	자유인 주갑이	이태희
2017	윤씨 부인 이야기	박은정
	송관수가 작가에게 띄우는 편지	김승중
2018	꽃이 아니라 새(鳥)로 태어날거요-별당아씨 이야기	강은모
	강포수전	이호규
	작은 사내 조병수가 들려주는 가락이 있는 흥타령	장미영
	십금녀 이야기	문윤희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발표문 제목을 보면 전반에는 『토지』 등장인물 이름에 ‘이야기’만을 붙이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발표자 나름의 개성 있는 제목이 실리고 있다.

2012년부터 이 코너를 ‘인물열전’이라 호칭하였는데, 사전적 의미에서 ‘열전(列傳)’이란 과거 역사물에서 활용했던 기록 방법 중 하나이다. 임금을 제외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전기를 열거하여 서술하는 체제의 기록물을 뜻하며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비롯하였다고 한다. 한국문학에서 ‘전(傳)’은 고전 산문이나 소설 작품을 이르는 한 장르이기도 하다. 어떤 한 인물의 독특한 행적을 서술하면서 교훈을 담는 고전적인 문학 양식을 가리키며 인간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한 가전(假傳) 소설 작품도 전해오고 있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토끼전〉 등 익숙한 판소리계 소설의 양식을 떠올리게도 한다.

지금까지 ‘인물열전’ 발표자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기존에 『토지』를 연구했던 학자이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를 보인 학자이다.

물론 소설가도 있으나 그들도 역시 학자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듯 발표자의 특성을 한정된 것은 ‘인물열전’이 문학포럼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대하소설 『토지』의 경우 한 번 정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기존의 『토지』 연구자들을 발표자로 선정해야 안정적으로 발표문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표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총 18편의 ‘인물열전’의 서술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유형을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원작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한 인물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서술이다. 두 번째 유형은 『토지』 원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등장인물의 생각과 사건들을 새로 넣은 외전(外傳)적 특성을 보이는 서술이다. 세 번째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꾼 강담사(講談師)처럼 청중과 소통하려는 현장성이 두드러진 서술이다. 네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설을 더하여 재미 그 이상을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서술이다.

3-1. 원작 보존 지향의 재구성

‘인물열전’ 발표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서희 이야기〉이다. 이 발표문을 살펴보면 원작 『토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취지에 맞추고자 ‘서희’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표 2〉 이상진, 〈서희 이야기〉 소제목

1부	
아버진 싫다는데두	2. 엄마 데려와어
3. 이 사람들은 누구냐?	4. 농발 대신 저기 막대기를 꺾었느니라
2부	
5. 재목이 둥이 날 테니	6. 오라버니가 되어 주십시오

7. 난 길상이하고 도망갈 생각까지 했던 말이야	8. '봉순이가 누구야? 내 곁에서 시중들던 아이 아니냐?'
9. 보복을 하기 위해서 ...별당의 그 여자를 유인해 갔다 그 말씀이시요?	
3부	
10. 입말의 양심을 가져가시든지 돈 오천 원을 가져가시든지	11. 세 사람의 여자로 하여
12.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분이었던다	13. 왜 돌아왔을까
4부	
14. 아이들은 이 재물을 원치 않는다	15. 간도로 아니 갔던들
16. 어머니가 내려오셔야지요	
5부	
17. 나는 행복한 여자인가	18. 사람으로 태어난 슬픔
19. 무릎 꿇고 빌지 못하겠느냐?	20. '너하고 나하고 전생의 무슨 인연이었을까'
21.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송재영, 서정미, 정호웅, 성은애 등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7개의 각주를 이용하여 추가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여 결국 이 글의 발표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원작 『토지』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1부에서부터 5부까지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하위 항목으로 소재목을 붙이되 이 소재목 또한 원작에서 따온 것이다. 〈서희 이야기〉는 『토지』 원작에서 서희가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서사를 있는 그대로 원작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1번에서 21번까지 항목을 나누고 번호를 붙이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발표문이다.

이와 유사한 집필 구성을 보이는 '인물열전'은 〈길상 이야기〉와 〈윤씨 부인 이야기〉이다. 2015년에 역사학자 이인재 교수가 발표한 〈길상 이야기〉는 나머지 17편의 '인물열전'에서는 볼 수 없는 길상을 중심으로 한 연표가 제시되어 있고, 연도나 연령별 구성, 혹은 사전 양식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길상에게 의미 있는 연도로 꼽은 1903, 1906, 1916 등의 연도가 먼저 제시되고 그 해에 있었던 조직 활동 내용이 원작에서 인용되는 연도별 구성, 그와 유사하게 16살, 25살, 27살 등 길상에게 의

미 있는 나이를 제시하고 그때의 활동이 제시되는 연령별 구성은 한 인물의 생애를 개관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임명빈이 본 길상: 출신 신분과도 다르고 활동을 한 행적과도 다르고 학식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랄까? 인간의 존엄성이라 할까, 범치 못할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더군. 그분의 신분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말수도 적은 편인데 그 말도 아주 절제된 것이라고나 할까?(하략) (5부 4편 1장 만산은 흥엽이로되)¹⁶⁾

또한 위의 인용문처럼 어구로 소항목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짧은 『토지』 원문을 붙인 구성은 사전처럼 정리된 구성이어서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구성 체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토지』 원작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서희 이야기〉와 유사하다. 발표자가 마지막에 길상이에 대하여 ‘새로운 리더상 시생인(侍生人)’이라는 간단한 평가를 하였는데, 이것 역시 완성된 문장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며 어구와 화살표 기호를 이용한 도식이어서 『토지』 원문과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2017년 박은정이 발표한 〈윤씨부인 이야기〉 역시 위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발표문이다. 소제목을 달면서 원작 인용문을 붙이는 사전적 형식의 구성이다. 인물과 관련한 『토지』에서의 허구적 사건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혹은 인물 관계이든 따로 분류하지 않고 『토지』를 읽어내는 텍스트 흐름에 따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6) 이인재, 〈길상 이야기〉, 『2015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문화재단·토지학회, 2015, 88쪽.

〈표 3〉 박은정, '윤씨 부인의 생애' 소제목

1) 출생과 혼인	2) 사별	3) 친정의 몰락	4) 휘절
5) 모정의 단절	6) 비밀	7) 아들의 의혹	8) 최치수의 성례
9) 장암 선생	10) 최치수의 여성관	11) 동학혁명	12) 김환
13) 구천과 별당아씨	14) 서희	15) 사냥	16) 바우 영감과 간난 할멈의 죽음
17) 최치수의 죽음	18) 두 아들	19) 윤씨와 최참판댁	20) 조준구
21) 농밭	22) 죽음	23) 가까운 사람들	24) 남자

위의 순서에 따라 윤씨 부인의 생애를 원작 인용문으로 소개한 후 발표자는 윤씨 부인의 성격과 외모를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만화 등 대중매체에서 다른 윤씨 부인 모습을 이미지로 몇 장 제시함으로써 흥미로운 마무리를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세 편의 '인물열전'은 독자 혹은 청중에게 친절하게 인물을 소개하되 원작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원작을 읽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작 보존에 대한 엄격함을 유지함으로써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대중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이끌어내는 기여도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보인다. 대중 독자가 작품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평가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오히려 원작으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3-2. 외전(外傳) 지향의 텍스트

2012년에 발표된 조윤아의 〈임이네 이야기〉는 임이네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모노드라마 형식을 보인다. '들어가는 말'에서 발표자가 임이네로 감정이입하여 그의 입장에서 서술자가 되기로 한 까닭을 밝혀 놓았

는데, 『토지』에서 사랑받지 못한 인물, 주위에 해악을 끼쳐 미움을 받은 인물이어서 그를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 임이네의 입장이 되어 그녀의 삶을 대변해 보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발표자가 서술한 임이네의 독백 속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토지』원작의 어구나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원작을 적극적으로 해체하되 표절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의 상상력으로 구성된 임이네의 독백 다음에는 그러한 상상을 할 수 있었던 『토지』원작의 내용을 단락으로 인용해 놓았다.

평사리 마을 아낙들과 오순도순 모여 앉아 일을 하면서 수다를 떨고 국시를 맡아먹던 그 시간은 제 삶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강청댁 그거는 맨날 늦거나 빠져나갔지만, 저는 함안댁이나 두만네, 봉순네, 그 형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중략) 저는 강청댁이 알미워서 “강청댁 심사에 일부러 불을 지르듯 자리를 바꿔가며 웃음기를 머금고 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용이 그 사내는 눈길 한번 안 주더군요. 왜 그런지 그렇게 냉정하게 굴면 그럴수록 잘생긴 얼굴이 더 잘나보였습니다.¹⁷⁾

위의 글을 보면 원작자도 모르고 독자도 모르는 내용, 즉 어떤 한 상황에서 임이네의 속마음이 발표자의 상상으로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원작에는 없는 등장인물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본전(本傳)에서 빠진 이야기를 의미하는 ‘외전(外傳)’의 성격을 보인다. 이 발표문의 마지막에는 임이와 흥이 엄마로서 임이네가 깊은 반성과 회한의 마음을

17) 조운아, 〈임이네 이야기〉, 『2012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문화재단, 2012, 100쪽.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원작에서 끝까지 추악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이기에 이러한 결말은 발표자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발표자로서 청중의 이해를 돕거나 청중을 대변하거나 청중과 공감하는 인물이야기를 하지 않고 발표자 자신의 적극적인 투사를 통해 텍스트를 흡수하고 창작하면서 결핍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열전’은 남녀노소 어떤 독자라도 집필이 가능하다. 심지어 원작에 대한 면밀한 독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자라도 캐릭터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자신을 투영한 텍스트로서 원작의 재생산이 가능하다.

2013년 박상민이 발표한 〈김두수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의 서술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발표문은 ‘1. 나는 사람 되긴 글렀나 보다/2. 나는 살인 죄인의 아들, 천애의 고아이다/3. 나는 거북이가 아니다/ 4. 내 운명의 여인, 심금녀/ 5. 과거를 아는 사람들과 재회하다/ 6. 다시 김거복(金巨福)으로!’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나’ 1인칭 서술로 자서전 같은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김두수 이야기〉는 자서전처럼 자기 자신과 관련한 인물들이며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혀 적고 있다.

나의 어머니 ‘함안댁’은 일찌감치 나의 사람됨을 포기했던 것 같다. 소금항아리에 몰래 계란을 묻어두고 아버지 김평산에게만 가끔씩 요리해주는 것을 내가 모를 리 있겠는가. 계란을 훔쳐먹은 것은 배가 고팠기 때문이 아니다. 술과 노름밖에 모르는 아버지 김평산에게 온갖 구박과 모멸을 받으면서도 양반가 여성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려 애를 쓰는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싶었기 때문이다.¹⁸⁾

18) 박상민, 〈김두수 이야기〉, 『2013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문화재단, 2013, 112쪽.

위의 인용문을 보면 『토지』를 읽은 독자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자신의 어릴 적 그때 마음을 전하고 있다. 자서전을 집필할 때 자주 활용되는 회상 서술이다. 〈김두수 이야기〉는 600여 명이나 등장하는 『토지』의 등장인물 중에서 한 인물을 선정하여 독자가 인물 자서전을 쓰도록 하는 대중 독자 활동의 아이템이 될 수 있기도 하다.

같은 해 2016년도에 발표한 〈유인실 이야기〉은 순수 창작 소설이다. 발표자 이덕화는 학자이자 교수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인실이 엄마〉라는 제목으로 단편 소설을 창작하였다. 원작 『토지』의 시대적 배경에서 벗어나 8·15 광복 이후 일본에서 자란 소년 쇼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음은 그 첫 장면이다.

쇼지는 다리를 질질 끌고 쓰레기 더미를 이리저리 피하며 걷는다. 지독한 악취가 상상을 초월한다. 히비야 공원 내에 있던 공화당 앞 오가타 아저씨와 같이 와서 앉았던 벤치도 오리밥을 주던 연못도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히비야 공원 자체가 쓰레기더미로 바뀌었다.¹⁹⁾

이덕화는 자신의 창작 소설임을 밝히면서 소설 집필을 위하여 일본 히비야 공원을 방문했던 일화도 소개했다. 그리고 쇼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 작품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유인실을 주인공으로 하는 창작물을 집필할 의도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살펴본 두 인물의 이야기 형식에 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양식이기는 하지만, 독자들이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인물의 외전을 창작할 수 있다면 원작의 해체가 가져올 긍정적인 대중문화의 향방이라고 할 수 있다.

19) 이덕화, 〈인실이 엄마〉, 『2016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문화재단·토지학회, 2016, 68쪽.

3-3. 청중과 현장 지향의 텍스트

양문규가 발표한 〈용이 이야기〉는 ‘들어가는 말’에서 발표자가 전지적 작가로서 용이라는 인물에게 시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그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하되, 앞서 살펴보았던 인물열전의 1인칭 서술과 달리 3인칭으로 호명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발표자가 좀 더 자유롭게 시점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인다. 또한 인물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지나치게 감성에 호소하지 않는 균형을 보인다. 무엇보다 원작 그대로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의 훌륭한 문체를 살려 쓰으로써 개성 있는 한 편의 글이 되고 있다. 발표자는 원작과의 혼돈을 피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때그때 『토지』 원문을 단락으로 실어 놓았다.

섬진강변에는 들물이 팽팽하게 들어찬 듯싶다. 그곳이 내려다보이는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그 마을을 용이는 사랑했다. 좋은 시절,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었던 그 마을은 용이에게는 근원적인 것이다. 서러운 사연들이 묻혀 있지만 더럽혀지지 않은 자신의 존엄을 심었던 곳, 사랑을 심었던 곳, 고뇌를 심었던 곳. 용이의 머릿속에는 평사리와 얽혀 잊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중에서도 세 명의 사람 - 최치수, 윤보 형님, 월선을 떠올린다.²⁰⁾

용이가 세 명의 사람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한 이 글은 ‘어린시절, 최치수 그이-‘그리운 윤보 형님-‘가없는 여인, 월선이’ 등 세 사람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발표자가 파악한 용이

20) 양문규, 〈용이 이야기〉, 『2011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문화재단, 2011, 78쪽.

의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주관적인 작품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원작에 없는 사건을 상상으로 만들어 집어넣지 않고 최대한 원작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꼼꼼하고 충실한 독자이자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길’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작품 속 용이의 위상과 용이의 성격, 작가 의도 등을 분석해 놓았다. 작가가 아닌 학자로서, 또 『토지』 연구자로서 청중을 위한 코멘트로 마무리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독자/청자가 서술자와 함께 작품세계로 빠져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인물열전은 문학포럼에 모인 청중 앞에서 한 인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초창기에는 전례를 찾기 힘들어 발표자 나름대로 스스로의 발표 스타일에 맞추어 구성을 하였으나, 2018년에 오면 4명 중 3명이 분명하게 청중을 향해 인물이야기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당아씨 이야기〉를 발표한 강은모는 〈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거요〉라는 제목을 달고 청중을 향한 경어체 ‘습니다’의 서술 방법을 사용하였고, 〈조병수 이야기〉를 발표한 장미영은 〈작은 사내 조병수가 들려주는 가락이 있는 흥타령〉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역시 같은 서술 유형을 취하고 있다. 다른 점은 강은모의 경우 등장인물을 3인칭으로 호명하고 장미영의 경우 등장인물을 1인칭으로 호명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토지』 원작의 내용에 충실하여 등장인물을 몇 인칭으로 부르든 상관없이 성실한 이야기 전달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물론 발표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소회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논리적인 비평가의 서술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꾼 같은 감성적인 서술이어서 오히려 청중은 깊이 공감할 수 있다.

별당아씨는 죽기 전 구천에게 새들처럼 날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천의 기억 속에 그녀는 '산속의 새, 산속의 꽃'으로 살아있습니다. 구천 역시 내세에 도요새가 되기를 꿈꿉니다. '아비 도요새, 어미 도요새, 그 여자 도요새와 함께 만경창파 구만리 장천'을 날아보고 싶어합니다. 내세라는 불확실한 희망 밖에는 기댈 곳이 없었을 별당아씨가 소망한 대로 새(鳥)로 태어났기를 바랍니다. 담장 너머 온 산과 들을 훨훨 날다가, 따스한 봄볕 내리쬐는 진달래꽃 나무 위에서, 잠시 쉬어가 는 새를 본다면, 별당아씨 그녀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²¹⁾

위의 인용문을 보면 현장에서 발표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발표자의 따스하고 애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또 청중 역시 그와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빼어난 문장력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정성스럽고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원작을 자유자재로 주무르며 독자적으로 별당아씨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 작가 박경리를 향해 편지를 쓰는 관수의 관점에서 서간체 구성을 시도한 김승중의 <송관수 이야기>, 고전소설의 양식을 차용하고자 시도한 이호규의 <강포수전>, 주갑이를 자유인 조르바에 투사하여 해설한 이태희의 <자유인 주갑이>, 인물의 전기(傳記)양식 구성을 따른 최윤희의 <귀녀 이야기>와 서현주의 <공월선 이야기> 등 인물열전 발표문들을 보면 역시 『토지』원작의 충실한 독자이자 청중 앞에서 성실한 전달자로서 서술 구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독자의 수가 늘어난다면, 인물열전의 유형은 좀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서술로 쓰여질 것이다. 따라서 인물열전 코너를 확대하거나 발표자의 특성을 다양하게 하거나, 혹은 문학포럼이라

21) 강은모, <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날 거요-별당아씨 이야기>, 『2018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문화재단·토지학회, 2018, 81쪽.

는 오프라인 행사장이 아니라 온라인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도전적으로 펼쳐볼 필요가 있다.

외전(外傳)처럼 독자 나름의 상상력으로 펼치는 인물 이야기와 청중 앞에서 청중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염두에 둔 인물이야기는 대중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을 유도하여 독자에서 등장인물로, 독자에서 작가로 전이(轉移)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 대중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것은 대중문화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로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원작을 해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3-4. 전문해설 지향의 텍스트

인물열전의 발표자들이 대부분 『토지』연구자이기에 이들에게 기대하는 독자의 기대치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토지』를 읽는 시민 동아리가 존재하고, '박경리문학공원'에서는 매해 '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독자층은 허구적인 상상력이 담긴 인물열전보다 좀 더 지적 수준이 높은 그야말로 인물의 전기를 기대할 수도 있다. 외전이나 창작은 이 독자층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인물열전으로는 이승윤의 〈이상현 이야기〉, 김성수의 〈구천이 이야기〉, 함정임의 〈봉순이 이야기〉, 문윤희의 〈심금녀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이승윤은 〈이상현 이야기〉에서 『토지』의 서지적인 지식과 박경리의 마지막 미완의 작품인 『나비아 청산가자』 등과 관련한 지식을 아울러서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분석과 해설로 잘 짜여진 이 글은 '경

계인으로서의 상현', '지식인으로서의 상현'이 지니는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

물론 '나는 이상현이 아니다', '이상현의 여자들' 등과 같은 타이틀을 붙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시하기도 하여 청중/독자에게 재미를 주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별당아씨 이야기>나 <용이 이야기>에서 감정이 입으로 얻을 수 있는 감동적인 재미와는 다른, 분석과 통찰의 재미를 준다.

2014년 두 발표자인 김성수와 함정임은 유사한 형식을 보이는데, 이들의 발표문 역시 『토지』의 수준 높은 독자,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발표문이다. <구천이 이야기>와 <봉순이 이야기> 발표문은, 한 인물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토지』에 대해 발표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 알고 있던 것을 전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성수는 『토지』의 제목에 대하여, 함정임은 작가 박경리와의 인연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주목을 끈다.

그 다음으로는 『토지』인물구성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발표자가 파악하고 있는 점을 알려준 후에, 본격적으로 한 인물의 삶을 전해준다. 인물이 보여준 행적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 보여준 인물 행동의 의미를 분석하기도 한다. 또 발표자의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된 학자들의 연구도 동원하면서 분석과 평가를 이끌어 간다.

아래의 대목들은 봉순이 차마 끊어내지 못한 미련을 그리움으로 착각하여 해관을 따라 용정으로 서희와 길상을 찾아가 '봉순으로서' 품었던 그리움의 실체를 '기화로서' 냉정하게 확인하고, 더 이상 봉순이 아닌 기생 기화의 부평초 같은 신세와 운명을 빠져리게 자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²²⁾

22) 함정임, <봉순이 이야기-순종과 순정 사이, 어떤 사랑의 역사>, 『2014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문화재단·토지학회, 2014, 93쪽.

위의 인용문은 함정임의 〈봉순이 이야기-순종과 순정 사이, 어떤 사랑의 역사〉 일부분이다. 함정임은 소설가이자 학자, 교수이다. 앞서 이덕화가 소설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함정임은 분석과 해석에 충실한 인물 이야기를 발표한다. 소설가라고 해서 인물열전을 소설로 쓸 것이라는 짐작은 편견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토지』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교수라고 해서 늘 한결같이 인물열전을 분석과 평가로 채울 것이라는 생각 역시 편견이다.

인물열전의 매력 중 하나는 누구나 여러 번 동일한 인물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유형의 인물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물론 다른 인물 이야기로 관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듯 인물열전은 고전(古典)으로 여겨지는 『토지』원작을 적극적으로 해체하면서도 즐겁고 용이하게 독자의 것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텍스트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4. 나오는 말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첫째 날 프로그램인 학술연구 발표를 살펴보면 발표 당일 개성을 드러내며 발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발표문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술연구 발표문의 경우 논문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포럼 주제와 관련한 연구논문이 있거나 유사한 연구업적이 있는 기존 연구자가 발표하고 있으며 발표문은 연구자들이 기존에 익숙하게 작성해온 양식의 글이다.

하지만 둘째 날 프로그램인 ‘인물열전’을 살펴보면 발표자 간에 발표문과 발표 방식 모두 상당한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으나 이것은 대략적인 틀일 뿐이며 한 편 한 편 서로 다른 개성을 드러내는 글들이다.

기획하는 측에서 발표문 양식을 특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문학포럼에서 이러한 시도가 처음 이루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 발표를 볼 수 없었으므로 특정 양식을 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주로 논문을 발표해오던 학술연구자들이 이미 완성된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한 인물에 대하여 ‘인물열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발표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 연구자들로 ‘인물열전’ 발표자를 한정할 이유는 없으며 연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를 정독한 독자라면 누구나 ‘인물열전’의 취지에 맞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정독하지 않은 독자라도 그가 알고 있는 등장인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또 다른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물열전’이라는 원작 해체 행위는 독자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하고 성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는 스스로 한 인물을 선정하고 그 인물의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며, 존 스토리가 말한 것처럼 정체성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분명, 원작의 해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인물열전’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의 서사는 처음부터 긴밀한 복잡성을 띠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68년 『월간문학』 11월호에는 박경리의 단편소설 〈약으로도 못 고치는 병〉이 게재되어 있다. 이 내용은 용이와 월선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토지』 1부 9회의 연재분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박경리의 다른 소설 작품에 나타난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이 얽혀 있기도 하다.²³⁾ 인물별로 서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오히려 『토지』의 가치

를 밝혀내는 연구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서사를 나누고 쪼갬다고 해서 『토지』원작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인물열전’에서는 허구적인 인물만을 다루었는데, 『토지』에 등장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물 이야기도 해볼 수 있다. 그것이 ‘역사’와 관련한 것이기에 더욱 강도 높은 언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토지』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는 ‘역사’를 피하려고만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는 다수의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콘텐츠를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마당을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독자들이 제각각의 상상으로 배틀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23)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25-26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원주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문화재단·토지학회, 2011-2018.

2. 논문과 단행본

김예니, 『만화 〈토지〉가 보여주는 매체 전환의 한계』, 『돈암어문학』 제31집, 돈암어학회, 2017, 111-140쪽.

박상민, 『다매체 시대의 서사담론과 글로컬 문화 스토리텔링』, 박이정, 2016.

_____, 『박경리 『토지』의 서술 특징에 따른 대중적 향유 전략』, 『대중서사연구』 제24권 3호, 2018, 259-284쪽.

이수현, 『매체 전환에 따른 토지의 변용 연구-영화, TV드라마, 만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승하, 『소설 『토지』의 장르 변용에 따른 문제점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2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147-184쪽.

임우기·정호웅 편, 『토지사전』, 솔출판사, 1997.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최유희, 『『토지』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원작 비교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2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185-237쪽.

_____, 『SBS 드라마 〈토지〉 연구—서사 리듬 분석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6, 365-403쪽.

존 스토리, 『대중문화란 무엇인가(Inventing Popular Culture)』, 유명민 역, 태학사, 2011.

_____, 『대중문화와 문화이론 제5판(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박만준 역, 경문사, 2012.

Abstract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Contents of Popular Culture by Disorganizing the Original

— Focusing on novel *Toji's* 'Inmulyeoljeon'(The Characters's story)

Cho, Yun-A(Catholic University)

As Pak Kyong-ni's novel *Toji*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kinds of media including movies, dramas, and cartoons, it has been considered appropriate to touch the original as little as possible. But the recently released 'Inmulyeoljeon' disorganizes the original aggressively. In fact, it approaches the narrative with only one character as the main charac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mulyeoljeon'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contents of popular culture by disorganizing the original.

There are 18 pieces of 'Inmulyeoljeon' that have been released in 'the Festival of Pak Kyong-ni Literature' from 2011 to 2018, and 18 characters have been spotlighted so far. They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escription. In the first type, the presenter intervenes as little as possible and quotes and reorganizes the original just as it is. The second type can be viewed as a supplementary story as the presenter imagines and adds contents that are not in the original. In the third type, the presenter acts as a storyteller, delivering to the audience interesting and moving stories about the character's lifetime. Lastly, the fourth type seeks to aid readers in understanding the original better with specialized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e first type is advantageous as it allows us to have a similar experience to reading the original. However, as it strictly maintains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it is insufficient in inducing the public to partake in independent as well as active cultural activities. The second and third types are beneficial as they encourage the public readers to imagine freely and allow them to be transferred from being just a reader to being a character or even a writer and may also vitalize the public as

readers. The fourth type is advantageous because it can enhance the level of readers who have read the original faithfully; however, it still lacks as a text for readers who find it difficult reading the original.

'Inmulyeoljeon' shows u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new text that can be read with pleasure and easiness while actively disorganizing the original of the classic *Toji*. If more diverse fields are opened where anyone can be the author of 'Inmulyeoljeon', it will be possible to produce even more interesting and noticeable contents of popular culture afterwards.

(Keywords: Pak Kyong-ni, *Toji*, 'Inmulyeoljeon(The characters's story)', disorganizing the original, supplementary story, popular culture)

논문투고일 : 2018년 10월 19일

논문심사일 : 2018년 11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1월 13일